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③	④	①	①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①	③	④	①	②	②	②

해설

-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기원전 1500년경부터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인돌은 이 무렵에 등장한 무덤 양식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③ 강화 부근리의 탁자식 고인돌은 남한 최대의 고인돌이며 사적 137호로 지정되었다.

<오답 확인>

① 연천 전곡리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② 북은 철기 시대에 한자가 전래된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④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다.
- (가) 영고는 부여의 제천행사이다.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다섯 부족을 중심으로 한 연맹왕국을 형성하였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등 발전된 국가체계를 갖추었지만 3세기 말 선비족인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494년 고구려 문자왕에게 항복하였다.

(나) 무천은 동예의 제천행사이다. 동예는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라로서 옥저와 함께 일찍부터 고구려와 중국 한군현의 압력을 받았으며, 군장국가 단계에서 고구려에 흡수되었다.

④ 동예는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책화(責禍)라는 풍속에 있었는데 이는 모두 씨족사회의 전통에 해당된다.

<오답 확인>

① 고구려에는 소노부, 계루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등 5부족이 중심이 되었고, 6대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② 삼한의 지배자 중에서 세력이 큰 것은 신지와 견지, 작은 것은 읍차와 부레로 불렸다.

③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또한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고,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소도에 도망을 하여 숨으면 잡아가지 못했다.
- 제시문의 (가) 왕은 고려 17대 왕 인종(1122~1146)이다. 인종 때 왕의 외척인 이자겸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금에 대한 사대정책을 취하였다. 이자겸은 척준경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십팔자위왕(十八子爲王)이라는 도참설을 유포하여 왕위 찬탈을 노렸지만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에 반목이 나타나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들이 중요 인물로 등장하였다. 묘청, 백수한, 정치상 등이 중심이 된 서경 세력은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개경 출신 문벌귀족을 억누르고 자주적인 혁신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또한 금에 대한 사대정책을 거부하고 금나라 정벌과 칭제건원(稱帝建元, 황제로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주장하였다.

③ 이자겸의 난 이후 지덕(地德)이 쇠한 개경 대신에 지덕이 성한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는 서경길지설이 유행하여 인종은 서경 임원역 근처에 대화궁을 짓게 하였으나 개경 귀족들의 반발과 묘청의 난으로 서경 천도는 무산되었다.

<오답 확인>

①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고 상설기구화 되었다. 도평의사사는 주로 권문세족으로 구성되었으며, 문벌귀족이 장악한 도병마사에 비해 관료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② 『주자가례』를 보급하여 성리학적 질서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16

세기 조선 시대에 사림파가 정계에 진출하면서부터이다.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것은 1232년 고려 고종 때이다.

- 밀줄 친 ㉠은 1919년의 3·1 만세운동이다. 암태도 소작쟁의(1923~1924), 정우회 선언 발표(1926),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창립(1922)은 3·1 운동 이후 일어난 사건이다.

독립의군부(1912)는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1914년 독립의군부는 전국의 조직을 통해 일본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임병찬과 주요 간부들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조직이 해체되었다.

- 밀줄 친 '성상'은 조선의 9대 왕(1469~1494) 성종이다. 제시문의 법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다. 이로써 성종은 조선의 기본 통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하고 제도의 정비를 완비하였다.

④ 성종 때에는 편찬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경국대전, 동문선, 국조요령, 동국여지승람, 악학궤범, 삼국사절요, 금양잡록 등이 편찬되었다.

<오답 확인>

① 동국병감(문종), ② 동몽선습(중종), 삼강행실도(세종)

- (가) 토지제도는 고려 경종(975) 때 제정된 시정전시과이다. 시정전시과는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직, 현직의 모든 관리에게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관품의 경우 광종 때 마련된 공복제를 기준으로 하였고, 인품의 경우 역분전 제도를 토대로 하였다.

④ 시정전시과를 지급하기 위해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으로 관리를 구분하면서 자삼의 경우에는 18등급으로 나누었다. 또한 18과에 들지 못한 관리에게는 전직 15결을 한외과로 지급하였다.

<오답 확인>

② 문종(1076) 때 제정된 경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문종 때에는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고, 지급 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5품 이상에게는 공음전, 하급 관리의 자제에게는 한인전, 승려에게는 별사전을 지급하였고 무산계 전시과가 마련되었다. 또한 거란과의 전쟁을 통하여 무인들의 지위가 상승하자 무관과 무관 사이에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고, 한외과는 폐지되었다.

③ 공양왕(1391) 때 제정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던 신진사대부들은 위화도 회군 이후 정권을 장악하고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하는 과전법을 실시하여 경제적 기반은 마련하였다.

④ 태조(940) 때 제정된 역분전에 대한 설명이다. 태조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공로를 세운 공신 등에게 공훈과 충성도,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지급하였으며 일종의 논공행상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때에는 관품의 높고 낮음이 고려되지 않았다.

- 을미사변(1895), 을사조약(1905, 제2차 한일협약), 서울진공작전(1908)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찾는 문제이다.

① 대한제국 시기에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1898)를 조직하여 외국 상인의 상권 제한을 주장하고, 상권 수호 운동을 벌이면서 근대적 상인으로 변모하였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대적 공장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오답 확인>

② 신민회(1907~1911)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에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단체로, 일제가 날조한 안락사건, 105인 사건으로 조직의 정체가 드러나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와해되었다.

③ 개항 이후 일본 상인들이 침투하여 곡물을 자국으로 유통하고 조선의 식량난을 가중시켜 곡물 가격의 폭등과 함께 흉년까지 겹치게 되자, 1889년 황해도 관찰사 조병철과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④ 러일전쟁 때 일제가 국토의 1/4 규모에 달하는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보안회는 거족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보안회의 활동에 자극을 받은 일부 상인과 관리들은 농광회사를 설립하여 황무지를 우리 손으로 개간할 것을 주장하였다.

- (가) 왕은 발해의 2대 왕인 무왕(719~737, 대무예)이다. 무왕은 흡수말 같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흡수말갈을 치게 하는 한편, 돌궐과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였다.

『속일본기』의 기록에 따르면, 728년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면서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하였다.

③ 무왕 때 발해는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

<오답 확인>

①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고왕)은 처음에 국호를 진(震), 연호를 천통(天統)이라 하였는데, 고왕이 발해 군왕으로 책봉된 이후 발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713).

② 신라가 급한 승정을 발해에 보낸 시기는 헌덕왕(812) 때에 해당된다.

④ 3대 문왕(737~793) 때 대흥(大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시문은 1933년 한국 독립군이 북만주 일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벌인 사도하 전투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 독립군은 한국 독립당의 산하부대로 1931년부터 중국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여 활동하였다.

③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1932), 경박호(1933), 사도하(1933), 동경성(1933), 대전자령(1933)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답 확인>

① 1930년대 초반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산하의 군대로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어,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를 받아 중국 의용군과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영통가(1932), 흥정성(1933)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② 미쓰야 협정(1925)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와 만주 군벌 장쥔린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독립군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중국군이 독립군을 체포해 주면 일본이 현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3부의 활동과 통합을 등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④ 1938년 중국 한커우에서 조직된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주도로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의 산하부대로 조직되었으며, 대부분 조선 민족 혁명당원들이 주력이었다.

10. 제시문은 각각 조선 후기의 농업과 상업상의 변화에 관한 글이다.

① 조선 전기부터 서울에서 상업 활동을 독점해 왔던 시전상인들은 왜란 이후 새로이 정부로부터 금난전권을 부여받아 사상(私商)의 활동을 규제하고 억압하였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정조는 신해통공(1791)을 반포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는데, 이로써 시전상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었다.

<오답 확인>

②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확대 실시되고,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농민들은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의 상업 작물을 재배하여 팔았다.

③ 『감저보』(영조), 『감저신보』(순조)는 고구마의 재배·이용·저장 방법에 대해 저술한 책이다.

④ 조선 후기에는 대형 쟁기가 사용되면서 깊이 관 고랑에 작물의 씨앗을 심는 견종법이 보급되면서, 이랑(두둑)에 심을 때보다 가뭄에 유리할뿐더러 김매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었다.

11. 단군 이야기가 수록된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람 등이 있다.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동국이상국집』에 실려 있으며,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이다. 서술상의 특징으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오답 확인>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는 단군조선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 『삼국유사』와 마찬가지로 단군 이야기를 서술하였으며 발해를 고구려 계승국가로 보고 우리의 역사로 부각시켰다.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1705)는 단군에서 정통이 시작되어, 기자-마한-통일신라로 이어진다고 보아 이익과 안경복의 역사관에 영향을 주었다.

④ <기미독립선언서>(1919)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글로, 전문의 마지막에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12. 제시문은 충렬왕 때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1281)의 서문이다.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 교유의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또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처음 수록하였는데, 발해는 우리의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답 확인>

① 각훈의 『해동고승전』(1215), ③ 서거정의 『동국통감』(1485), ④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13. (가)는 1894년 5월 동학 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합의한 전주화약이다. 이때는 정부가 청에 파병을 요구하여 청군이 상륙한 상황이었고, 일본도 텐진조약을 근거로 파병을 시작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가 외세의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을 포위한 홍계훈의 경군과 타협하여 패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고 일단 해산하였다.

④ 1894년 9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일본의 영향 하에 1차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군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봉기하였다. 이 때 남접의 전봉준이 삼례에서 농민군을 이끌고 봉기에 나서자 북접의 최시형, 손병희도 기포령을 내려 연합군을 형성하고 논산에 집결하였다(2차 봉기).

<오답 확인>

① 황토현 전투는 1차 봉기 당시인 1894년 4월에 일어났다.

②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게 하고 수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착취를 일삼자 1894년 1월 전봉준이 농민군을 모은 다음 고부 관아를 습격하였다(고부민란).

③ 고부민란 직후 정부는 봉기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태를 안핵사로 파견하였는데, 이용태가 동학교도들을 체포하고 탄압하자 1894년 3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무장(전북 고창)에서 봉기하여 본격적으로 반봉건 항쟁을 시작하였다(1차 봉기).

14. 신라는 신문왕(681~692) 때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주 밑에 군과 현을 두었으며,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대공의 난은 768년 신라 혜공왕 때 귀족들이 대부분 참가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란이다.

① 성덕왕(702~737)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오답 확인>

② 동시전은 509년 지증왕 때 시장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③ 진대법은 2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때 제정된 빈민 구제정책이다.

④ 799년 소성왕 때 청주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음으로 삼았다.

15. ③ 2009년에 발견된 미륵사지 서탑의 금제 사리 봉안기에 따르면 무왕의 왕비인 사백 왕후의 발원으로 639년 서탑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부여 정립사지 5층 석탑에는 당나라 소정방의 백제 멸망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오답 확인>

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1348년 충목왕 때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든 탑이다.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시대 때 건립된 주심포 건축물이다.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은 17세기에 건립된 건축물로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16. 제시문의 (가) 교육기관은 서원이다. 서원은 사람이 지방에 설치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1543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봉사하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조이며,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학문 연구, 양반 자제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오답 확인>

① 조선 시대에는 부·목·군·현마다 중등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하나씩 설립하였다. 향교에서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양반은 물론이고 평민도 입학할 수 있었다.

②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한양의 4부학당이나 향교에 입학하지 못한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교육을 받았다.

③ 조선 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양반 자제 중 소과 합격자인 생원, 진사에게 우선적인 입학자격을 주었다. 성적이 우수한 유생에게는 대과를 조기 시험 면제해 주었으며, 50세까지 착실히 공부하면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17. (가)는 조·일 통상장정(1876, 무역규칙), (나)는 조·미 수호통상조약(1882)이다.

일본과의 통상장정에서는 일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 및 양곡

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였다.

<오답 확인>

조·일 수호조규부록(1876)은 강화도 조약 제11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추가 부속조약으로, 일본 외교관의 조선 여행 자유, 개항장에서의 일본 거주민 거주지역이 설정되었고(간행이정 : 10리),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조·러 수호통상조약(1884)은 조선 정부가 청의 알선 없이 직접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으로, 내용은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과 거의 같았으나, 상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로서는 해상 무역이 큰 의미가 없어 1888년 따로 조·러 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8. ㉠~㉢은 조선 시대의 중앙 정치조직이다.

㉠ 사간원은 임금에게 간언을 하거나 정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 있는 '논박'을 관장하였다.

㉡ 이조의 정6품 관직인 이조좌랑은 이조정랑과 더불어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 출납과 군국기밀을 담당하였다.

㉣ 홍문관은 서적의 관리, 경연의 관장, 정책의 학문적 뒷받침, 국왕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의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를 비판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 조선 시대에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한 관서는 교서관이다.

19. 제시문은 박은식(1859~1925)이 저술한 <유교 구신론>(1909)이다. 박은식은 이 글을 통해 실천적인 유교정신인 양명학을 강조하였다.

㉠ 박은식은 국가의 구성요소를 국혼(역사, 神)과 국백(형태, 形)으로 나누고 국혼을 강조하였다.

<오답 확인>

㉡ 정인보는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여 한국학을 연구하였으며, 『조선사연구』를 지어 '조선의 일'을 민족정신으로 강조하였다.

㉢ 1944년 임시정부는 5차 개헌을 통해 주석·부주석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 군무부장인 김원봉을 주어 좌우 합작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 신채호는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으며,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정을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계통으로 파악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직후 최초로 조직된 정치단체로,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이 안재홍과 함께 결성하였다.

(다) 해방 이후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는 와중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어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다.

(가) 1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남한과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 일어나자 1946년 7월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 안재홍 등이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에는 좌익과 우익의 입장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라)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성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 지도자의 협상에 의한 총선을 주장하였다. 통일 정부의 수립을 열망한 김구, 김규식 등은 북측에 남북 협상을 제의했으며, 이에 북의 김일성, 김두봉이 남북 연석회의를 제의함으로써 회담이 성사되었다. 1948년 4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연석 회의에서 통일 정부 수립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는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이했던 시험인 만큼 시험 당일 실수 여부가 당락을 많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이번 국가직 한국사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8번 문제에서 신라가 급찬 승정을 발해에 파견한 사실, 10번 문제에서 고구마의 재배 방법을 다룬 『감저보』·『감저신보』를 제외하면 그동안 빈번히 출제되었던 개념이며, 이를 몰랐다면 하더라도 풀이에 어려움을 겪을만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료를 읽고 역사 용어나 인물을 추론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료에서 키워드를 찾고 출제 의도를 파악